

2010년 6월 4일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님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뉴욕시 학교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주지사의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 학교들은 작년보다 5억 달러 감소한 예산을 편성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과 더불어 특수교육 및 연금 등 늘어난 지출로 인해 올해 학교 재정은 7.5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희는 지난주 4,400명의 교사를 정리하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초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향후 2년간 교사 및 교직원의 급여 인상을 보류해 교사들의 직장을 보전해 주도록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리직원도 물가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다음 학년도에 교사들의 정리해고를 막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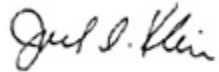
교육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희생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교육청 사무 예산은 20퍼센트 삭감되어 55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4백만 달러의 예산 삭감으로 중앙부서에서 5퍼센트의 직원을 줄여야 합니다.

뉴욕주의 부족한 자금 지원의 악영향으로부터 학교들 보호하기 위해 정리해고 보류가 크게 도움이 되지만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는 교사를 보충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2천명의 교사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큰 적자로 인해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학년도에는 학교 예산을 4퍼센트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의 4.9퍼센트 예산 삭감에 이은 추가 삭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 학교의 교장 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이메일 DOEBudget@schools.nyc.gov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나아가서는 미국 전체가 예산삭감으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요즘, 저희는 이 방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들,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지도하여 학생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교사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엘 I. 클라인
교육감 배상